

해방기 시에 나타난 만주상상력 연구

김 영 주*

차 례

1. 서론
2. 『在滿朝鮮詩人集』과 만주상상력
3. 유치환, 순수와 희망의 공간
4. 리옥, 이상실현과 재생의 공간
5. 결론

국문초록

만주지역은 학술적 쟁점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역사적 현장이다. 수많은 논의 중에서도 일제가 강점하여 건립한 만주국시기를 둘러싼 쟁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만주국은 근대국가로서의 위상을 선전하는 동시에 제국의 야욕이 초래한 실제적 한계를 노정하는 공간이었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만주국이지만 당대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그 지역과 주변국의 기억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는 만주국시기를 거쳐 해방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주상상력을 문학적 관점에서 해명해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유치환과 리옥은 개인적으로 집안환경이나 연배가 비슷하고 만주국시기에 발간된 『在滿朝鮮詩人集』에 작품을 발표한 공통점이 있으며 시대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격동의 해방기를 각각 남한과 연변에서 맞이하였고 이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삶을 이어가게 된다. 두 시인의 비교지점은 만주를 둘러싼 상상력이 해방기에 기입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42년 출간된 『在滿朝鮮詩人集』 시기에 드러나던 만주이미지가 이후에는 어떻게 기억되고 상상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해방기 시에서 확인되는 만주상상력을 분석해보았다.

해방기의 만주상상력을 논하려면 그 전 시기에 만주에 관하여 시인들이 품고 있었던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인시집에서 두 시인이 보여주는 주제의식은 자연에 대비되는 인간군상을 향한 염오와 청춘애상이라는 말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만주에 이주한 유치환이 인간타락상을 비판하는 준엄한 시를 쓰게 된 이유는 만주별판에서 느낀 원시 자연의 생명성과 인간의 행태가 극단적으로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이주정착민으로 만주에 뿌리내리고 있던 리옥은 청춘의 애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향수에 젖은 모습을 드러내는데 조선을 고향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성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에서 광복을 맞이한 유치환은 해방기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만주의 기억을 새롭게 재현한다. 사리사욕을 내세우며 기세를 잡으려는 정치 상황에서 오롯이 민족과 국가의 운명만을 걱정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던 공간으로 만주를 상상하게 된다. 자신의 이욕만을 추구하는 무리를 향한 준엄한 일갈이 드러나는 현실비판적인 시와 함께 순수와 희망의 공간으로 만주를 기억하는 시를 발표하여 만주상상력을 낭만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해방기 연변대학을 중심으로 중국의 사회주의사업에 동참하던 리옥은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중국작가협회에 가입하며 활발한 문단활동을 이어나간다. 이전까지 보이던 개인서정을 탈피하여 사회주의 문학관의 영

향을 받아 목적론적 문학 창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소수민족에게 차별 없는 기회를 약속하는 중국본토에 대한 우의를 표현하고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역사의식과 정치의식이 뚜렷한 작품을 생산한다. 리옥에게 만주지역은 민족의 존립근거이며 역사적 발전과 화합의 공간으로 재정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기에 두 시인이 구성한 각자의 만주상상력은 이후의 작품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치환은 개인과 사회를 넘나들며 다양한 관심사를 서정적으로 표출해나간 반면 리옥은 사회주의 체제지향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해방기와 그 이후의 시대에까지 필요에 따라 만주의 기억이 다르게 상상되고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고려한다면 만주상상력 논의는 만주국시기 이후 만주를 호출하는 다른 시인과 작가들의 의식세계를 고구할 때에도 유용함을 타진해볼 수 있다.

주제어 : 만주, 만주상상력, 유치환, 리옥, 기억, 민족

1. 서론

만주지역은 역사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쟁점이 극대화 된 시기에 소위 만주국이라고 지칭되는 괴뢰국가가 설립되었으며 중국 본토와는 상관없이 세계무대에 국가라는 명칭을 내걸고 나타나게 되었다. 근대국가의 형상을 표방한 만주국은 급격한 속도로 형성되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내는 동시에 주위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기치 하에 다수의 민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제국주의의 선전정책을 받아들여 자신의 위상을 세우려는 조선인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순히 순진한 믿음에 빠져서 제국의 논

리를 받아 들였다기보다는 지배논리와 피지배논리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교섭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민족 간의 화합을 제창하면서도 이면에서 반목을 조장하였던 일제의 양면적 정책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나마 민족의 실리를 추구해보려는 피식민지인의 양가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조선은 만주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주위 국가 중 하나이면서, 양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지배세력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다.¹⁾ 조선인들은 만주를 회복해야 할 정신적 고토古土인 동시에 현실적인 탈출구이자 도피처로 이해하였다. 또한 만주국에서는 친일세력과 항일세력뿐만 아니라 협력과 비협력의 어느 지점을 선택할 수 없는 중간자적 위치에 놓여있는 조선인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만주국이 생산하는 환상성과 동시에 환멸감을 경험하였다. 만주국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특성은 만주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방문하는 조선인들에게 다양한 감정 상태를 유발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문학작품 역시 다수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²⁾ 특히 만주심

1) 일제는 조선을 완전한 식민국가로 접수한 반면, 1932년 건립한 만주국의 독립성은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이것은 만주국 건국시기 무렵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식민주의 팽창이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대동아공영의 전진기지로 만주를 점령한 일본 군벌의 표적으로 형성된 표면적 청조의 부활이라는 이데아 때문이었다. 다른 열강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만주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일제의 간계에 의하여 만주국은 설립초기부터 국내외적으로 독립국가임이 선포되었다. 국제사회로부터 만주국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이미 거대제국을 형성한 일본의 자만심에서 볼 때 관심 밖 문제였다.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개정판), 동아대 출판부, 2007, 32~35쪽.

2) 만주국 시기 조선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친일과 항일의 논리에 치우친 논의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제에 대한 협력과 비협력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처세가 아닌 현실인으로서의 재만조선인의 복잡한 심리구조에 집중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재만조선인 문학에 드러나는 복잡다기한 심리상태에 주목하는 최근의 대표적인 논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주는 만주국이 선전하는 환상적 측면과 실재하는 허상적 측면에 주목하여 조선인들이 품을 수밖에 없

상을 연구하는 논의는 시보다는 소설 분야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³⁾

일본의 패망으로 만주국은 영원히 사라졌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조 선족과 남한, 북한 모두에게 어느 정도 인용되고 복제된 면이 있다. 중국 조선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꾸준히 삶의 영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주국은 잊을 수 없는 역사 감각으로 남아있다. 이들에게는 만주국의 다소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면모를 체험한 과거와 중국조선족으로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현재가 있다. 일본이 패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기 이전까지 혼

었던 만주를 향한 복합적인 감정을 재만조선인 시세계에서 확인하고 있다. 김영주,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복합성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2. 천춘화는 한국근대소설이 만주를 형상화하고 있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만주국시기 작품에서 보이는 작가내면에 형성된 만주국민과 조선인으로서의 갈등에 주목한 바 있다. 천춘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장춘식은 만주국에 대한 협력과 일제에 대한 저항이 동시에 드러나는 소설에서 피식민지인이 겪는 혼종성을 포착하고 있다. 장춘식, 『재만 조선인문학을 보는 또 다른 시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3) 소설 갈래에서 만주심상을 연구한 최근의 논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선미, 「〈만주체험〉과 〈만주서사〉의 상관성 연구」,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차성연,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의 의미」, 『만주연구』 9, 만주학회, 2009.

이경재,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만주 로컬리티」, 『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학회, 2012.

한홍화, 「작가의 공간의식과 만주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장뢰, 「한중 근대소설과 만주」, 『비평문학』 48, 한국비평문학회, 2013.

연남경, 「김학철 <격정시대>에 나타난 만주와 역사의 재현」, 『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정호웅, 「한국 현대소설과 “만주”라는 기호」, 『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최성운, 「최명익, <심문>의 인물 형상화와 만주 인식의 상관성 고찰」, 『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최일, 「김창걸 해방 후 소설에서 보이는 ‘국민상상」, 『만주연구』 19, 만주학회, 2015.

란한 정세 속에서도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조선인들의 정착지이자 고향이 되어준 곳이 만주지역이다. 일제의 패퇴 이후에 정세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같은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기에 이들에게 만주국의 기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남과 북은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역사에 만주를 기입한다. 남한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권력을 선점하지 못한 것과 달리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만주에서 돌아온 독립운동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만주국은 북한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김일성의 독립운동사가 신화화되기에 이른다. 남한에서는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임시정부요원들조차 외세의 영향과 국내적 갈등 때문에 정치와 군부에서 소외되고 만다. 그 결과 친일전범들은 처단되지 않은 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군부 독재정권은 자신들이 경험한 만주국의 근대화 제도와 속도를 복제하게 된다.⁴⁾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인은 그대로 남거나 남과 북으로 흩어졌지만 만주국의 기억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해방기⁵⁾에 이들이 상상한 만주는 어떠한 모습일까를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선이다. 만주국 시기 그곳에 이주정착하거나 방문한 조선인들이 남긴 작품에서 만주국의 면모를 살필 수 있듯이, 각자의 기억 속

4) 만주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국가주도 경제개발, 국가발전의 모델이다. 한국 근대국가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시대에 만들어졌으나 이른바 박정희 정부 시대에 완성된다. 국민의례, 행진, 강연, 영화상영, 운동회, 전단, 표어 등의 행사는 만주국시대에 행해지던 것들이고 이것은 그대로 한국의 근대에 복제되었다. 만주국이 속도와 효율을 내세워 전통을 말살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 한국은 속도, 효율, 획일성 등을 이념화하기에 이른다. 고구려연구재단 편, 『만주,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2005, 178~179쪽.

5) 해방기라는 용어는 국내적으로는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정국이 혼란하던 시기를 일컬으며, 중국조선족의 입장에서는 만주국 해체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에 잠재된 만주 혹은 만주국의 모습은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호출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재만 조선인 문단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소모적 연구가 될 수도 있는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출생 시기나 집안의 이력과 같은 개인사적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으나 결국 다른 지역과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된 두 명의 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유치환은 1908년에 태어나 거제와 통영에서 유년시절을 보내었다. 1940년 형 유치진의 농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만주로 향하게 되었고 독립되기 두어 달 전에 귀국하였다. 재만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두 번째 시집 『生命의 書』를 출간하였으며 이후의 작품에서도 만주의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발견된다.

리옥은 1907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세 살에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이민 4세대다. 증조부가 이주를 하여왔으니 리옥은 부모세대 때부터 이미 조선 땅을 밟아보았다고 할 수 없는 이주정착민이다. 빈곤한 가정환경에서도 학문과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중국조선족으로서로는 최초로 중국문단에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연변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작품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나간 결과 지금까지도 중국조선족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걸출한 인물로 손꼽힌다.

유치환과 리옥은 출생연도가 비슷하며 『在滿朝鮮詩人集』에 나란히 이름을 올릴 만큼 만주에서 문학적 교류가 있었다. 또한 두 시인 모두 부친의 직업이 한의韓醫였으며 조부 때부터 이어져온 한학적 가풍아래에서 근대교육 이전에 한문학습을 선행하였다. 두 시인이 재만 조선 문인으로서 어느 정도 교감하고 있었는가를 증명할 방법은 없고 또한 문학적 성취나 시적 스타일도 모두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바이기 때문에 선부르게 두 인물에게서 유사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선입견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연배가 비슷하고 유사한 분위기의 가풍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주국 시기에는 이주민과 이주정착민으로서 나뉘

고 해방 이후에는 지역을 달리하여 살아가게 됨으로써 두 시인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는 데에는 대표적인 비교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시인은 개인사적인 교차점 외에도 이후의 문단에 끼친 영향으로 볼 때 대표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광복 이후 유치환은 민족진영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활약하게 되고 리육은 사회주의사상을 내면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문단에서도 활동하는 대표적인 조선족시인으로 위상을 매기기 때문이다.

1942년 발행된 『在滿朝鮮詩人集』에 이름을 올린 시인들 중에서 광복 이전에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고 광복 이후에 남쪽으로 귀국한 경우는 유치환과 김달진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⁶⁾ 그 중에서 유치환은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도 여전히 빠지지 않고 상기되고 있는 시인이기도 하다.⁷⁾ 유치환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간곡한 서정을 동시에 보여주며 해방 이후 가장 정력적으로 작품 활동에 임하여 자기만의 시세계를 구가한 독자적인 품격의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⁸⁾ 리육은 조선족 시문학의 개척자로 평가받으며 중국조선족문학사 기술에서 빠질 수 없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인이다.⁹⁾ 해방 전 다수의 작품이 일제의 문화정책 때문에 유실되었으나¹⁰⁾ 해방 이후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리육은 문학적 역량과 사회적 활약을 병행해나간 대표적인 시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환과 리육이 만주국 시기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만주의 이미지를 상상해내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해방기 남한과 연변이라는 분리된 공간과 달라진 상황에서 만주를 둘러싼 상상력이 어

6) 김용직, 『해방 직후 한국시와 시단의 형성 전개사』, 푸른사상, 2009, 344쪽.

7) 오상순, 『중국조선족문학사』, 북경: 민족출판사, 2007, 94~96쪽.

8) 유중호, 『한국근대시사』, 민음사, 2011, 253쪽.

9) 조성일, 권철,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0, 366쪽; 권철, 『건국전 리육의 시세계』,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김조규·윤동주·리육』, 보고사, 2006, 373쪽; 권철, 『중국조선민족문학』, 한국학술정보, 2006, 147쪽; 오상순, 같은 책, 201~204쪽.

10) 권철, 같은 글, 375쪽.

떻게 시인의 세계관 형성에 일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在滿朝鮮詩人集』과 만주상상력

1940년에 만주로 이주한 유치환은, 교사와 기자를 거쳐 《조광》지사 사장이 된 리옥과 1942년 『在滿朝鮮詩人集』의 동인으로 만나게 된다. 『在滿朝鮮詩人集』은 평안남도 출신으로 1939년 만주로 이주한 김조규와 리옥¹¹⁾이 주축이 되어 발행한 시집으로 재만 조선시인들의 디아스포라적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집이다. 또한 일제 말기 한글로 출간된 시집이라는 점과 만주국 시기에 엮어진 몇 안 되는 조선인 동인시집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치환과 리옥은 자라온 환경과 연배가 비슷하고 교사시절을 역임했다는 측면 등의 유사점이 있으나 당시 문단에서의 영향력은 달랐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¹²⁾ 유치환은 이미 개인시집을 출간한 유명한 시인이었고 그가 만주로 와서도 계속하여 조선의 문예지에 창작물을 발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942년 당시 리옥과는 문단적 위상이 달랐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치환은 만주에 이주, 정착하였으나 언제든 조선으로 돌아갈 계획을 품고 있는 귀향의사가 뚜렷한 이주민이었던 반면¹³⁾ 리옥은 누대에 걸쳐 만주지역을 삶의 토대로

11) 리옥은 『在滿朝鮮詩人集』에 李鶴城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수록하였다.

12) 『在滿朝鮮詩人集』에 시를 수록한 시인들 가운데 광복 이전 시인으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경우는 유치환을 비롯하여 김달진, 김복원, 김조규, 이수형, 함형수 정도로 평가를 하기도 한다. 김용직, 같은 책, 344쪽.

13) 유치환의 만주 이주 원인에 관하여서는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시인 본인과 몇몇 연구자에 따르면 일제하 사상적, 상황적 부자유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로 보고 있는 반면, 박태일은 통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집안문제에서 촉발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것은 작품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

삼고 있었던 이주정착민이었다. 물론 1942년 당시 조선의 유명잡지 지사장을 역임할 만큼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까지 리옥은 교사, 서점직원, 기자로서 부침을 겪어온 바 결코 누구에게 비교당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 단지 두 사람의 문학적 이력이나 작품세계를 논하기에는 일정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굳이 두 시인을 선택한 이유는 만주와 관련된 상상력이 해방이후까지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삶의 양상이나 환경과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해방기의 만주상상력을 논하려면 그 전 시기에 만주에 관하여 시인들이 품고 있었던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在滿朝鮮詩人集』에서 두 시인이 보여주는 주제의식은 자연에 대비되는 인간군상을 향한 염오와 청춘애상이라는 말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유치환은 세 편의 시 「生命의 書」¹⁴⁾, 「怒한 山」, 「陰獸」를 『在滿朝鮮詩人集』에 발표하였다. 이 시들 역시 그의 첫 시집 『靑馬詩抄』에서부터 유치환 시세계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어적인 한자 어투와 준열한 어조를 보여주고 있다.

른 해석을 낳게 하는데, 앞선 관점의 일반적 연구들이 유치환의 재만 시절 시에서 지사적 면모를 살피는 데 반하여, 박태일은 부왜적 요소를 발견하고 있다. 귀향과정 역시 전자의 입장은 우연한 기회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는 반면, 후자는 일제의 패망을 직감하고 친일의 처세에 두려움을 느껴 피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일,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 『어문학』 98, 한국어문화회, 2007, 294~322쪽. 본 연구는, 정반대의 해석이기는 하지만 어느 쪽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유치환에게 귀향의사는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입장을 모두 인정하고자 한다. 협력, 비협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만주상상력을 논하는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14) 잘 알려진 「生命의 書」는 '1章'이고 『在滿朝鮮詩人集』에 수록된 시는 '2章'이며 1947년 출판된 시집 『生命의 書』에는 1, 2章으로 각각 수록되어 있다. 『在滿朝鮮詩人集』에는 제목 뒤에 '2章'이라는 표기 없이 발표되었다.

빼쳐빼쳐 亞細亞의 巨大한 地僻알타이의 氣脈이
드디어 나의故鄕의 조고마한 고희丘陵에 다였음과같이
내 오늘 나의핏대속에 脈脈히 즐기흐른
저-未開痏 種族의 鬱蒼한 性格을 깨닫노니
人語鳥 우는 原始林의 안개 깊은 雄渾한 아침을 헤치고
털깊은 나의 祖上이 그 廣漠한 鬪爭의 生活을 草創한 以來 敗殘은 오직
최악이었던도다.

- 「生命의 書」 중에서

딱히 만주라는 지칭은 없지만 광활한 만주지역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었을 기백을 느낄 수 있는 시이다. 드높은 산맥이 체내에 연결되고 있는 듯 원시인류의 모습은 강인하며 패배를 모른다. 인용부분 아래에는 이러한 미개인들이 지닌 야수적인 원시성을 체화한 화자가 자연 앞에 당당하게 서서 비록 원수와 싸워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된다고 하여도 여한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屍體로 업드린 나의 尺土를 새 밝양게 물드릴지라도/ 아아 해바라기 같은 太陽이여/ 나의 좋은 怨讎와 大地우에 더 한층強烈히 빛날지니라”라고 시를 마무리 짓는 시인의 태도에서 죽어도 좋다는 발언이 지닌 삶의 강한 긍정과 생명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이 찬탄하는 인류의 생명력을 좀먹으려는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심정 역시 다음 작품에서 표현하였다.

그 淪落이 거리를지켜
먼 寒天에 山은 홀로이 돌아앉아 있었도다.
눈 뜨자 거리는 저자를 이루어
사람들은 다투어 貪婪하기에 餘念없고

- 「怒한 山」 중에서

神도 怒여워 하시기를 그만두셨나니
한낮에도 오히려 어두운 樹陰에 숨어

劫罪인양 昏昏한 懈怠의 思念을 먹는者!
너 열두번일러도 열두번갯치려지않고
드디어 마음속 暗鬼에 병어리되어
하늘 푸르른 福福을 窺내 받어드리지못하여
항시 보이잖는 怨讎에게 찌끼어떨며 穢穢치위같은골수에 사모치는 怨恨에
줄을상하나니하여

- 『陰獸』 중에서

만주지역은 항일구국이라는 사명을 품고서 혹은 식민치하의 억압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를 누리보려고 떠나온 자들의 망명과 이주가 실현된 공간인 동시에 당장의 먹고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공간이기도 하였다. 만주국 설립 이전부터 농경지를 찾아 도강을 감행해온 민족의 역사를 보면 만주는 기회의 땅이자 삶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다른 목적을 품고 이곳을 찾은 이들이 있었으니 시정잡배라 불릴 만한, 누구든 등을 쳐서 한몫 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지닌 조선인들 역시 존재하였다. 타락의 일로에 서게 되는 과정은 자의와 타의로 나뉘질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만주 내에서 조선인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영향을 끼쳤다. 농사를 지어 삶을 이어가려는 간절한 이주민의 꿈 못지않게 타락한 군상이 만들어내는 음주와 매음, 마약을 일삼는 윤락의 세태가 동시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비단 조선인에게서만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라 혼란한 만주의 정세 속에 살아가던 만주의 다양한 민족이 보인 퇴폐적 분위기이기도 하다. 예시한 작품에서 산은 그러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에 노하여 돌아앉은 것으로, 나라에 빠진 채 떳떳하지 못하게 숨어 지내는 족속을 짐승에 비유하여 비판하고 있다. 대지의 광활함 앞에서 “항시 보이잖는 怨讎에게 찌끼어떨”고 있는 짐승 같은 인간군상은 유치환이 바라본 대자연 만주에 대별되는 또 다른 만주의 모습이었다.

리옥은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온 만주지역의 토착시인이다. 김조규와

함께 『在滿朝鮮詩人集』 출간을 주도하고 본인의 작품 「나의 노래」, 「蜀葵花」, 「五月」, 「落葉」, 「별」 등도 수록하였다. 이 시들은 세월의 흐름을 아쉬워하며 삶과 죽음의 문제에 번뇌하고 영원을 염원하기도 하는 의식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기 리옥의 작품세계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청춘애상이라는 말로 요약해볼 수 있다. 그런데 「별」이라는 시에서 “古鄉”이나 “鄉愁”라는 언급에 관하여서는 좀 더 논의할 특이점이 있다.

별은
 情답고
 寂寞하고
 幽遠하여
 밤 하늘은 古鄉갈기도하다.
 별은
 함박꽃처럼 피어나는 호젓한 이밤에
 萬年夢에 파묻혀서
 恍惚한 神話를 속삭이느니
 이제 별은
 나의 가슴속 적은 湖水에도
 푸른 鄉愁를 물고 내려 고이 잠든다
 고이 잠든다.

- 「별」 중에서

“별은 情답고 寂寞하고 幽遠하”기 때문에 “古鄉”을 연상하게 한다. 정답지만 아득히 멀게 있는 별에게서 고향을 떠올리게 되고 거기에서 환기된 “鄉愁”를 가슴속에 품고 고이 잠드는 모습이다. 리옥은 어린 시절부터 만주지역에 거주한 이민 4세대이다. 시인은 한 번도 살아온 곳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향수에 젖게 되는 것인지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에 관한 해답은 “幽遠”하게 존재하는 별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먼 존재인 밤하늘에서 고향을 연상한다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고향은 바로 멀리 있는 조선

땅이며 그의 향수가 지향하는 곳 역시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조선을 향한 그리움인 것이다. 몇 세대에 걸쳐 만주지역에서 살아왔으나 시인의 내면에는 민족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상상되는 조국은 조선이었다. 이것은 다음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오! 傳說의 나라 躑躅화
 이제 盛裝을 버린 너는
 여름철에
 百合꽃을 부러워할테냐?
 山菊花도 부러워할테냐?
 -아니오
 -아니오,
 그렇길래
 나는 너의 짧은 靑春을 사랑했다.
 나는 너의 타는 情熱을 사랑했다.

- 「躑躅花」 중에서

이 시에서 “躑躅花”는 질박하면서도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성정의 소유자로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 꽃은 고국이나 겨레를 상징하며, 우리 민족에게 생활의 길동무이자 투쟁의 고무자로 여겨진다.¹⁵⁾ 만주 땅을 고향처럼 여기며 정착하고 살아가지만 시인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민족의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민족과 조선은 시인이 영원히 그리워하는 대상인 것도 알 수 있다.

리옥에게 광복 이전의 만주는 여전히 타향이며 이민의 공간으로 기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리옥 초기 시세계의 주조를 이루는 감정인 청춘이 지나감을 아쉬워하는 애상의 감수성은 향수와 결합하여 더욱 배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滿鮮日報』에 발표한 시 「봄꿈」의 “너는 오늘도/ 故郷

15) 권철, 같은 글, 377쪽; 권철, 같은 책, 149쪽.

을 못 잊어/ 허무러진 옛 돌담밑을/ 몇 번이나 돌고도나”와 같은 구절에서처럼 청춘을 상징하는 봄날에 여전히 향수에 젖어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서정을 드러내는 시가 주를 이루던 당시 리옥의 작품세계에서 돋보이는 작품이 한 편 있다. 『오월의 붉은 맘씨』라는 시인인데 이것은 광복 이후 리옥의 시세계가 보여주는 변모양상과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놓이는 작품이다.

누나가 죽을 무렵
샛노랗게 익은 벼이삭이
소작인들
눈물에 젖던 가을

아버지는 우차에
벼를 산더미처럼 싣고가
최부자집 남가리만 가리던 날
병석에 뼈만 앙상한 누나
“그러다 죽으면 어쩔까”하기에
어머니도 얼굴을 돌리게 하던 가을
(...중략...)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몽클 터지는듯,
오오, 뻗기고 밝히던 그 가을
팔월 한가위날 사흘 앞두고
그만 누나는 그렇게 죽어
그가을 가난이 죽었길래

- 『오월의 붉은 맘씨- 누나가 죽던 가을을 추억』 중에서

생계를 위해 고국을 떠나왔으나 살림의 곤궁함은 여전히 그 와중에 약도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누나를 잃어야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

리고 있는 작품이다. 만주국의 현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은 아니지만 “1944년 연길 공원가에서”라고 시의 마지막 부분에 밝혀놓은 구절을 통하여 이주민이 겪어야했던 경제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식의 각성은 해방 이후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고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 시인의 이력¹⁶⁾을 해명하는 실마리가 되어준다.

3. 유치환, 순수와 희망의 공간

유치환은 광복 두어 달 전인 1945년 6월에 귀국을 하여 광복 이후 통영에서 지내며 통영문화협회를 발족하고 운영해나갔다. 청년문학가협회가 발족하자 중앙의 부회장직을 맡고 통영지부를 주재하였다. 이후 행적은 알려진 대로 민족진영문단에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¹⁷⁾ 시인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어지러운 정치상황을 반영하는 현실비판적인 작품을 다수 발표하였다. 해방 이후 시인은 그 어느 때보다 직설적으로 시국을 비판하였다.

16) 『작가 연보』,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2집 리옥 문학편』, 연변인민출판사, 2002, 605~608쪽.

17) 김용직, 같은 책, 343쪽; 이순욱,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 한국비평문학회, 2012, 194~200쪽. 이순욱에 따르면 조선청년문학가협회(1946년 4월 4일에 결성)의 부회장을 맡은 유치환은 지역작가를 규합하여 외연을 확장하고자 같은 해 6월에 청년문학가협회 경남지부를 결성한다. 또한 같은 시기에 통영문화협회를 조직하여 지역문화운동을 선도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활동을 왕성하게 펼쳐나간 유치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민족과 국가를 염려하는 시인의 정치적 입장 또한 이해할 수 있다.

썩어진 조선의 마음 위에
한달 아닌 아홉 해를 홍수비 내려라
일찍이 靑草도 뜻있어
의로운 무덤엔 삼가 오르지 않았거늘
慕外事大 仕色偏黨의 탈을 뒤집어쓴
百鬼夜行의 소돔의 나라 조선이여
아직도 이 나라에 해와 달이 비침을 저허할지니
불 아닌 天意의 은혜하는 이 한달 비에
아아 너희 달갑게 썩어지라 썩어지라

- 「1947년 7월 조선에 한 달 비 내리다」¹⁸⁾

광복의 기쁨도 잠시, 사분오열되는 국내정세를 바라보며 시인은 민족의 운명을 향한 통렬한 슬픔에 빠지게 된다. 이 작품 역시 당시 조선의 상황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그 부패와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는 시이다.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들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발표되는데, 『罪辱』이라는 시에서는 부제 “白凡翁 被殺의 悲報를 들은 날”에서 밝힌 것처럼 백범 김구의 저격 소식에 분노하며 슬퍼하고 있다. “진실로 원수를 넘겨야 할 같이/ 猖狂하여 그 노릴 바를 모르거늘/ 이는 끝내 濟度 못할 백성의 근본이러뇨/ 이날 이 불의의 저주는 슬픈 치욕을/ 여기 기틀 삼는 자 또한 있거들랑/ 하늘이여 마땅히 삼천 만을 들어 버력하라// 아아 겨레 된 벌로 함께 문헌/ 손바닥의 이 죄스런 피를 내 두고 두고 앓으리니”라며 백범과 같은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격변하는 시대에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보다는 자신의 출세나 이욕을 쫓는 무리들을 향한 준엄한 비판을 일갈하는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代 國會議員立候補者 亂立相을 보고”라는 부제가 붙은 『人民을 팔지 않을 耆를!』이라는 시에서는 당시 정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많기도 하구나 하루 아침 튀어 나온

18) 『울릉도』

/ 이 슯한 군소 정객들도/ 거리거리 제 이름을 大書特書/ 누더기같이 늘어 붙이고/ 지주 상인 목사 승려/ 교수 학생 회사원 의사 무직 할 것 없이/ 낙엽같이 흩뿌리는/ 세 훈어치 자기 경력과 탁월한 정견!/ 신록에 훈훈히 향기로울 오월의 공기를/ 모래알을 짓씹는 듯 서격이며/ 추력이 먼지를 뒤섞우고/ 중일을 확성계가 애원 공갈하고-”라는 첫 연에서부터 정치지망생의 헛된 공약과 이력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가 정당의 편파적 권력투쟁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민을 농락하는 자에겐 주지 말고/ 진실로 우리를 팔지 않을 자에게 투표하라”고 하는 경고를 하며 시를 마무리 짓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을 다수 발표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시인의 관심사는 국내정세이며 민족의 운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치환의 행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유치환이 주도한 ‘통영시문화인협의회’가 해방기 최초의 문예단체라는 점과 유치환이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면서도 중앙문단에서 역시 높이 평가받고 있던 가장 정열적인 시인이었다는 점이다. 유치환은 지역과 중앙의 문단이 교류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동시에 어느 쪽에서도 소홀하지 않은 왕성한 문학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¹⁹⁾ 그렇지만 문단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가 중앙문단에 완전히 진출해있지는 않은 까닭에 실제의 정치활동이나 사회운동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고 그 결과 충실하게 문학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²⁰⁾

따라서 유치환은 중앙무대와 로컬리티 정서를 동시에 교감하며 정치활동 대신 문학창작으로 사회비판적 의식을 드러냈던 것이다. 당시 사회현실문제에 염증을 표현하는 작품에 드러나는 시국을 향한 염려는 결국 민족을 향한 애정과 희망에서 촉발된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은 독립만 되

19) 박민규, 『해방기 경남 지역의 시운동과 시 이념』,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120~121쪽.

20) 김용직, 같은 책, 344~345쪽.

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데도 잠시, 민족의 염원을 잊어버린 채 열리는 민족애와 연대감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 유치환이 만주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미기에 닳쳐올 북방의 참담한 계절을 징조하여
 대해처럼 陰雲이 내려 깔린 먼 남 나라의 五常堡城外
 日沒의 길을 밟고 농부들 말없이 돌아오고
 까마귀떼 날아 우짖는 들길로 나와
 아까 요기로 한잔 나눈 胡酒 알맞게 오른 얼굴을
 싸늘한 첫겨울 들녘 바람에 쏘이며
 격월하고도 우의로운 담론에 열중하여
 조국을 논하고
 이땅에 와서 박힌 겨레의 거취를 논하고-
 요컨대 탈출할 수 없는 절망의 철창 틈새로
 한오래기 민족의 광명의 불들 길을 찾기에
 우리는 한가지로 悶悶하지 않았던가

간열프고도 재치꾸레기의 李여
 소년 같이 순정하고도 熱덩어리의 文이여
 그렇게도 우리의 핏대를 말리던 인육의 증압도 드디어 걷히고
 시방 조국의 크나큰 새날이 밝으려는 진통의 전야
 진실로 이때야말로 조국은
 당신들의 젊은 순정과 깊은 애정만을 의지하고 바라나니
 이 混沌한 어둠 속 어디에서 당신들은
 머리를 자치고 팔을 두르고 거리 거리를 내닫고 있느냐
 -그 모습이 나는 보이듯하나니
 지낸 날은 그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던 애달픈 조국이
 드디어 千年大道의 반석 위에 다시 서는 날
 어여쁜 벗들이여 우리도 한자리에 모여 앉아
 한뼘은 축배를 올려 목놓아 목놓아 울음 울거나

- 「五常堡城外- 泰和 雲谷에게」²¹⁾

1947년에 발표된 이 시는 『生命의 書』 이후로는 유치환의 시세계에 등장하지 않던 만주의 기억을 호출한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작품이다. 조국의 운명이 결정되려는 위태로운 순간을 앞두고서 과거 만주지역에서 두 친구들과 함께 조국을 걱정하던 한때를 떠올리고 있는 우국지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첫 연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젊은이들이 먼 남의 나라에 와서 조국의 미래와 이주한 민족의 운명을 논하며 절망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열망을 접지 않으려던 모습을 비장하게 회상하고 있다. “陰雲”이 깔린 “日沒”이라는 배경은 시에 등장하는 세 명의 젊은이가 느끼고 있는 “탈출할 수 없는 절망의 철창”의 비유이며 철창에 갇힌 듯하다는 현실감각 역시 식민지 젊은이가 겪는 암담한 심정을 상징한다. 그렇지만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젊은이들의 의지는 철창 틈새로 깃드는 한 오라기 빛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자신이 아닌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기에 찬바람 속에서도 지칠 줄을 모른다.

시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이제 해방이 되었고 “지낸 날은 그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던 애달픈 조국”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실은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다. “混沌한 어둠 속”에 놓인 조국을 위하여 헛된 망상에 빠져 사리사욕만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어여쁜 벗들”이 나서야 한다. “젊은 순정과 깊은 애정”으로 조국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설 때 조국 역시 바로 설 수 있으며, 이것이 유치환이 생각하는 민족의 염원이다.

따라서 이 시의 주된 정조는 그리움과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던 시절을 향한 그리움과 그 순수한 마음을 갖춘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염원이다. 그리움은 과거, 염원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에 배치되어 있고 또한 그리움은 만주, 염원은 조선(남한)이라는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시공간을 함께 고려하자면 ‘그리움-과거-만주’라는 축과 ‘염원-현재와 미래-조선(남한)’이

21) 『울릉도』

라는 축이 성립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해방기에 시인이 호출하는 만주는 이전까지 시인이 재현하던 만주이미지와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이다. 해방 이전의 작품에서 만주는 대자연의 생명력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인 동시에 그 생명력을 갉아먹는 인간군상의 부정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시인이 역사의식에 기대어 공명을 표하던 만주의 생명력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인간의 타락상에 염오를 드러낼 수밖에 없던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기 발표된 『五常堡城外』에서 상상되고 있는 만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곳은 순수한 열정이 있는 곳이고,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젊음이 있는 공간이다. 주위의 암울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아닌 조국과 민족을 염려하는 진실한 지식자들은 해방기 조선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인물이었다. 해방된 조국의 현실에서 염증을 느끼던 시인이 만주이미지를 낭만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라도 해결책을 찾고자하던 내적갈등의 소산이라고 판단된다. 해방기에 만주낭만의 부활을 꿈꾸는 유치환에게 만주는 희망의 탈출구로 상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리욱, 이상실현과 재생의 공간

리욱은 광복을 맞이한 이후 만주예문협회 문학부장, 연길중소문화협회 문화국장 등의 직책을 맡으며 예술단체 정비에 앞장서게 된다. 이후 연변대학 문학부장을 맡으며 학교 건립사업에 참가하였고 마르크스주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였다. 왕청현 라자구 토비숙청에 직접 참가하였고 조선 김일성 종합대학에 나가 군정대학교재 편찬을 하였다.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1947년, 1949년 첫 번째, 두 번째 시집 『北斗星』과 『北陸의 抒情』을 출간하였다. 이후 연변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1956년에는 중국조선족문인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작가협회에 가입하여 연변분회 이사로 당선되었다.²²⁾

리옥의 작품세계 전체를 두고 본다면 광복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해방기부터 창작활동이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만주지역과 조선(북한)을 오가며 역량을 발휘하는 한편 창작활동 역시 병행하여 수많은 작품을 남긴 것이다. 또한 이 시기부터 리옥의 시세계는 내용적으로도 크게 변모한 모습을 보인다. 창작 초기 개인의 서정과 젊음의 애상에 머물던 주제의식이 해방 이후부터는 민족과 역사에 대한 인식 쪽으로 기울게 된다. 만주지역에 이주하여 살게 된 조선인의 역사와 현재의 각오, 조선과 중국 사이의 우의를 강조하는 정치적 관점 등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있다.

노래와 한숨,
그리고
피와 눈물이 아롱진 생활보!

나의
어린적 놀이터!
젊은적 눈물터!
(...중략...)

그렇게
너 두만강은
망명객을 사귀었고
가난뱅이도 친했나니

두만강,

22) 『작가 연보』,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2집 리옥 문학편』, 연변인민출판사, 2002, 605~608쪽.

너는
투쟁의 강!
친화의 강!
(...중략...)

너는 이제
내 노래의 원천으로 되었어라.
인민이 주인된 형제나라
너는 그 기슭을 누비며
행복을 실어오는구나.

- 『내 두만강에 묻노라』 중에서²³⁾

전체 서른 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 『내 두만강에 묻노라』는 살기위해 두만강을 건너온 민족의 애환을 둘러싼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던 두만강이 해방 이후 조선과 중국 양국을 “인민이 주인된 형제나라”로 인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풀어준다는 현실인식이 표현되어 있다. 해방기에 리욱은 유사한 작품을 계속하여 창작하며 만주국이라는 허상의 국가에서 벗어난 기쁨을 감추지 않는다.

어제런듯 그 별은
호피마고자에
대홍바람 휘휘 일어
무시무시 몸서리치던
왕가지팡 틀림없건만

꿈이런듯
토지분배,
신세고친 농민들의 웃음꽃이

23) 『北斗星』

마을마다 호함지게 피는구나.

근로로 익히고
충성으로 다져서
피로써 지키고
살로써 아끼자.
(...중략...)

이제
평화로운 마을에
피어나는 푸른 연기에
뉘엿뉘엿 석양은 더욱 붉어
토지의 새 주인들이
대지 어머니의
커다란 가슴팍에
오붓하게 안기누나.

1948년

- 『석양의 농촌』 중에서

광복이전과 달리 리욱의 작품에는 과거 기억 속의 일상이나 현실생활에서의 면면에 관한 묘사가 세밀하게 등장한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입지를 굳힌 시인의 여유에서 나온 창작기법 확립의 결과로 이해된다. 해방 이전 소작농으로 전전하던 농민들이 사회주의국가에서 실시된 토지분배 사업으로 인하여 자작농이 되었음에 기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그러한 여건을 제공하여준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하고 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일제의 지배 하에서 상상되던 조국이 조선이었다면 해방기에 상상되는 조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조선족들에게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조국인 중국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약속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다. 이주민으로서 마음의 고향은 여전

히 고국 조선이겠으나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조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식이 내면화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1948년에 발표한 시 『三代』에서도 “제2고향”인 동북지역에서 살게 된 자신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며 사회주의국가관에 고무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나는 도리어 나약하고 비겁하여/ 예수앞에 무릎을 꿇어 보았고/ 총칼앞에 머리를 숙여보았고/ 황금앞에 손을 저어도 보았다.// 그러나/ 리성은 세월과 함께/ 세월처럼 새로와/ 마침내 기도를 끊었고/ 아침을 버렸고/ 허욕도 버렸나니”라는 부분에서 살필 수 있듯이 종교를 갖지 않고 권력이나 재산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이며 그러지 못한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²⁵⁾ 이러한 방식으로 리옥의 작품세계는 목적론적 문학관을 지향하며 나아가게 된다. 그에게 있어 만주지역은 이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성 역시 자부심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국가관에 따라 다수민족 중 하나의 민족이라는 세계인의 비전을 갖추게 된다.

24) 이러한 의식이 드러나는 작품은 『옛말』, 『강산도 빛나고 歷史도 새로와라』, 『혈서』 등을 예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상당수 존재한다.

25)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리옥은 시를 계급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해방 전 보여주었던 생명의 고뇌와 같은 서정성을 탈피하여 당시 유행하던 문학이념과 의식에 따라야만 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1951년 연변대학에 전근하면서부터 1970년대 말까지 리옥에게는 “반동문인”이라는 딱지가 이마에 붙어있었기에 시대의 변화를 따르려는 시적 자세는 어쩔 수 없었던 대응 방식으로 파악하는 주장도 있다. 오상순, 같은 책, 204쪽.

이러한 맥락에서 시인이 서정적 시를 쓰는 한편 말년까지 계속하여 체제지향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1981년 작품인 『인민영웅기념비』에서도 여전히 “오, 정녕 인민영웅기념비는/ 중화민족의 존엄인 저!...”라고 표현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30돐 기념 서정시집』, 북경: 민족출판사, 1982.

동북 한 지역에 點在 하여
가난한 붓 한자루도 좋아
저 불꽃이날리는 마치고
저 흙덩이 날리는 호미에
깡긋이 일직선을 지으리라.

오직 하나인
진리의 금고를 헤쳐
새로운 인도의 잔치를 베푸는 날
참살의 희열을 만끽하리.

한것은 인민을 위하여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또 영광스러운 일이여라.
나는 정의의 화불을 든
국제주의자라
의젓하게 손을 높이 들면
온세계의 동지들이 악수하여
천애의 원을 그리나니

저 멀리 우주관이 대전당에
인생의 꽃은 피여
아름다운 향기 풍기는 곳
자유 노래 흘러라
행복의 열매 드리워라.

1948년

- 「天涯의 圓」 중에서

다민족국가이자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어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념에 맞추어 “국제주의자”를 자처하고 “온세계의 동지들이 악수하”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시인은 동북한 지역에서 붓으로 일직선을 그었으나 중국 전 지역에 사는 동지들이

모두 일직선을 긋게 되면 결국 하나의 원을 그릴 수 있다는 발상이다. 중국의 모든 동지들이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사고는 시인의 역사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주민의 역사는 과거에 한정짓고 이제 새로운 국가에서 국제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세워 사회주의자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난다. 해방기에 동북, 곧 만주는 재생의 공간이며 이상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시인에게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만주는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띠는 역사적 공간이다. 이 지역을 둘러싼 역사적 논의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왔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일제가 건립한 만주국에 살았던 시인들이 일제패망 이후 해방기에 떠올린 만주에 관한 상상력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유치환은 만주로 건너가 몇 년간 거주하다 해방이전에 조선으로 귀국하였고 리옥은 이주정착민으로서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았다. 만주국 시기 두 시인의 만주상상력은 각각 인간에 대한 염오와 청춘애상으로 이어진다. 만주는 유치환의 작품에서 타락과 비애의 공간으로, 리옥의 작품에서 향수를 자극하는 공간으로 발화되었다.

해방기에 두 시인이 상상하는 만주이미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유치환에게 만주는 혼란한 국내정세를 틈타 출현한 시정잡배들과는 구별되는 순수한 젊은이들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염려하던 공간이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미래를 꿈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순수한 청춘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만주는 현실의 암담함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로 상상되었다. 물론 지나간 과거를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환의 만주상상력은 다분히 과거지향이다. 그러나 해

방기에 난립한 정치적 이욕다툼에 편승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는 작품을 생산한 시인의 의식을 만주에 투영했다는 점에서 과거를 이상적으로 그리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리옥은 해방기에 왕성한 사회적 활동으로 국가건설에 앞장서며 창작에도 심혈을 기울여 민족 시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갔다. 만주국시기 발표한 작품들이 애상적인 것과 반대로 해방이후 그의 시들은 사회주의이념을 실현하는 목적론적 문학관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리옥의 작품에서 상상되는 만주는 이제 더 이상 눈물과 애상의 공간이 아니다. 농민들이 땅을 갖게 되고 모든 민족이 동지가 되는 사회주의 이상이 실현된 공간으로 만주지역은 재현된다. 유치환과 달리 리옥의 만주상상력은 현재지향인데, 이것은 리옥이 당시 체제 설립에 누구보다 적극 가담하여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두 시인의 만주상상력의 차이는 해방기 이후의 시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치환이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고 사회비판적 의식을 발화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는 반면, 리옥은 사회주의문학의 특성에 걸맞게 목적의식을 노정하는 체제지향적인 작품을 생산하게 된다. 만주라는 공간을 둘러싼 두 시인의 상상력의 차이는 사회를 해석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초래되었으며 이것은 이후의 삶과 창작활동에까지 다른 의미로 이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만주국시기 이후에도 여전히 만주를 호출하는 다른 시인과 작가들의 의식세계를 고구하려할 때에도 만주상상력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만주상상력과 관련하여 더 많은 시인들의 의식세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재만의 경험이 생산한 만주이미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상되고 인용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시공간의 맥락과 더불어 해명된다면 창작의 동인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인의 내면세계가 외부적 상황과 맞물리는 계기를 확인하는

매개로서 만주상상력을 분석하는 작업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만주와 연관된 문학연구의 지평을 열어주는 동시에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주는 제국주의시대나 근대에서 끝나지 않은 기억으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소재의 문제를 넘어 생활 곳곳에 침투해있는 흔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만주를 단순한 소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말 것이 아니라, 세계관을 표출하는 잣대로 이해한다면 만주를 재현하는 방식에 따라 시인의 작품세계나 사상과 철학이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상상력을 분석하는 작업은 이러한 이유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작품과 시인으로 확장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在滿朝鮮詩人集』, 예문당, 1942.
-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30돐 기념 서정시집』, 북경: 민족출판사, 1982.
- 『靑馬柳致環全集』1,2,3, 정음사, 1984.
- 『리옥시선집』,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80.
- 박철석 편, 『새발굴 靑馬 유치환의 시와 산문』, 열음사, 1997.
-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2집: 리옥 문학편』,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2002.
-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현대시』, 보고서, 2006.
- 고구려연구재단 편, 『만주,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2005.
- 권철, 『건국전 리옥의 시세계』,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김조규·윤동주·리옥』, 보고서, 2006.
- 권철, 『중국조선민족문학』, 한국학술정보, 2006.
- 김영주,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복합성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용직, 『해방 직후 한국시와 시단의 형성 전개사』, 푸른사상, 2009.
- 박민규, 『해방기 경남 지역의 시운동과 시 이념』,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117~143쪽.
- 박태일,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 『어문학』 98, 한국어문학회, 2007, 291~350쪽.
- 연남경, 『김학철 <격정시대>에 나타난 만주와 역사의 재현』, 『현대소설 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113~137쪽.
- 오상순, 『중국조선족문학사』, 북경: 민족출판사, 2007.
- 유중호, 『한국근대시사』, 민음사, 2011.

- 이경재,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만주 로컬리티」, 『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회, 2012, 69~93쪽.
- 이선미, 「〈만주체험〉과 〈만주서사〉의 상관성 연구」,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349~386쪽.
- 이순욱,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 한국비평문학회, 2012, 189~226쪽.
- 장뢰, 「한중 근대소설과 만주」, 『비평문학』 48, 한국비평문학회, 2013, 347~371쪽.
- 장춘식, 「재만 조선인문학을 보는 또 다른 시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279~297쪽.
- 정호웅, 「한국 현대소설과 “만주”라는 기호」, 『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1~28쪽.
- 조성일, 권철,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0.
- 차성연,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의 의미」, 『만주연구』 9, 만주학회, 2009, 117~140쪽.
- 천춘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 최성윤, 「최명익, 〈심문〉의 인물 형상화와 만주 인식의 상관성 고찰」, 『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29~52쪽.
- 최일, 「김창걸 해방 후 소설에서 보이는 ‘국민상상」, 『만주연구』 19, 만주학회, 2015, 65~82쪽.
-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개정판), 동아대 출판부, 2007.
- 한홍화, 「작가의 공간의식과 만주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211~238쪽.

<Abstract>

The imagination of Manchuria of the poets in the Liberation Period

Kim, Young-Ju*

The Manchurian region is still the historical site that is at the center of academic issues. Among the many discussions, there has been a constant debate over the time of the building of Manchukuo, which was built by the Japanese colonial ruling. Manchukuo was the space that promoted its status as a modern nation while exposing the real limitations caused by the imperial ambition. Although Manchukuo disappeared along with the defeat of the Japanese empire, but the memories of the region and neighboring countries are not free from that time as well as the present day. This study started from an attempt to elucidate the Manchurian imagination from the literary point of view through the period from the Manchukuo era to the liberation period.

Yoo Chihwan and Lee Wook are similar in family backgrounds and their age personally, and they also have the commonality of having resided in the area during the Manchukuo period and having published their works in The poetry of Koreans in Manchuria. On the other hand, they greeted the turbulence of the liberation period in South Korea and Yanbian respectively, and then they continue on their lives in totally different environments. The comparison points of

*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two poets provide an opportunity to see how the imagination surrounding Manchuria is written in the liberation period. I analyzed the Manchurian imagination, which was confirmed in the liberation period, by reviewing how the Manchurian image that was displayed in The poetry of Koreans in Manchuria has been remembered and imagined afterwards.

In order to discuss the Manchurian imagination of the liberation period, it should be preceded by examining what were the images that the poets had with regard to Manchuria in the previous period. The subject consciousness that the two poets had respectively showed was the abhorrence and the youthful sorrow for the human race which contrast with nature. The reason why Yoo Chihwan who moved to Manchuria used stern poetry criticizing the human corruption is because the life of primitive nature he felt in Manchurian area extreme contrasted with human behavior. Lee Wook, who had settled down in Manchuria as a settler of migration, reveals his nostalgia in the process of expressing his youthful sorrows, and in the sense that Joseon is assumed as his hometown, we can confirm the aspect of the ethnicity that constitutes the inside of the migrants.

Yoo Chihwan who greeted liberation in South Korea reproduces Manchurian memory in the chaotic situation of the liberation period. He imagines Manchuria as a space where there was a pure passion soundly worrying only about the fate of the nation and its people, while being in the political situation in which people aimed to take the momentum with their self-interest. We can see that Manchurian imagination is composed romantically as he presented a poem that remembers Manchuria as a space of pureness, along with the poem

which was critical of the reality, showing a stern roar to the crowd who only went after their self-interest.

In the liberation period, Lee Wook, who participated in the Chinese socialist projects around Yanbian University, continued his active literary activities by joining the Chinese Writers Association for the first time as a Korean. He escapes the personal lyric that had been seen up to that point and shows the effect of the socialist literature ideals and concentrates on the creation of teleological literature. He expresses his fondness for the mainland China that promised non-discriminatory opportunities for minority people, and produces works with clear consciousness of history and politics in order to reveal his national pride as a Korean. We can see that the Manchu area i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existence and is being reestablished as a space for historical development and harmony to Lee Wook.

Manchurian imagination, which acted differently for the two poets in the liberation period, also affects the world of their works later. Yoo Chihwan has lyrically expressed his interests in various ways, crossing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while Lee Wook continues his work around socialist system-oriented themes. Through these conclusions, we can confirm that the memory of Manchuria is differently imagined and reproduced according to the needs through the liberation period and until the later time. In addition, we can try to see if this method of study is useful for researching on the consciousness of other poets and writers calling Manchuria after the Manchukuo period.

Key Words : Manchuria, The imagination of Manchuria, Yoo
Chihwan, Lee Wook, memory, ethnicity

- 논문접수 : 2017년 3월 15일
- 심사완료 : 2017년 4월 8일
- 게재 확정 : 2017년 4월 17일